

고려불화를 통해 본 현실세계 인물의 복식에 표현된 선(襯)의 특성

옥명선* · 박옥련[†] · 이주영**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시간강사* ·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동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전임강사**

The Characteristics of Seon(襯) as Expressed in the Costumes of Worldly Figures Illustrated in Koryo Buddhist Paintings

Myung-Sun Ok* · Ok-Lyun Park[†] · Joo-Young Le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Kyung Su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Kyung Sung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Tong Myong University**

(투고일: 2008. 6. 5, 심사(수정)일: 2008. 11. 7, 게재 확정일: 2008. 12. 15)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eon that was expressed in the costumes of worldly figures illustrated in Koryo Buddhist paintings.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Out of the above mentioned costumes, except those for Buddha and Bodhisattava, most were actually worn by people of Koryo. Shown in the paintings, the patterns and decorations of Seon are more brilliant and diverse in part of worldly figures than in that of Buddhist figures.

For men, Seon was mainly used to robes for Buddhist priest while, for women, costumes for the queen and noble women. Seon was applied to costumes for both men and women, especially Po for ritual purposes. Besides, it was sometimes used to Buddhist priests' robes and women's Banbi and chima. The patterns of Seon were usually single in composition style and scattering in arrangement style. Whether applied to costumes for men or women, Seon usually had complementary colors that were harmonized.

Key words: Koryo Buddhist Paintings(고려불화), worldly figures(현실세계 인물), costume(복식), Seon(襯), formative characteristics(조형특성)

I. 서론

본 논문은 이미 발표한 현실세계 인물의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¹⁾의 후속으로서, 고려불화에 보이는 현실세계 인물들이 입고 있는 복식에 표현된 선의 특성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선은 고대에는 남녀, 노소, 귀천의 구별없이 모든 의복에 사용되었으나,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비교적 낮은 계급의 의복에는 단순한 형태로 사용되거나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왕실과 상류층의 의복에는 다양하고 화려한 형태로 사용되어 차이를 보인다. 즉 선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실용적인 기능보다 신분을 표시하거나 의복을 장식하는 기능이 더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²⁾ 이에 고려시대의 복식유물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교적 자료가 풍부한 고려불화를 통해 현실세계 인물의 복식에 표현된 선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고려불화에 나타난 복식에 관한 연구를 보면, 불교세계의 인물들이 착용한 복식에 관하여 최영순, 김진희, 지미령은 보살복식에 관해 연구하였고,³⁾ 고승희, 임명자, 임영주, 박옥련, 정현주는 불화복식에 표현된 문양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⁴⁾ 육명선·박옥련·이주영은 아미타여래도와 수월관음도 복식에 표현된 선에 관하여 연구하였다.⁵⁾ 현실세계의 인물들이 착용한 복식에 관하여는 채금석, 김진성, 임명미는 고려불화에 나타난 복식에 관해 연구하였고,⁶⁾ 최근에 육명선·박옥련·이주영은 현실세계 인물의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분류에 관하여 연구하였다.⁷⁾ 이상의 선행연구를 보면 보살복식, 불화복식에 표현된 문양, 불화에 나타난 복식, 여래와 여러 보살 등의 불교세계 복식에 표현된 선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현실세계 인물의 복식과 관련된 선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前報의 현실세계 인물의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분류에 기초하여 현실세계 인물이 착용한 복식에 표현된 선의 특성에 관하여 착용계층, 사용의 복, 문양, 배색방법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 자료는 고려불화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현존하는 고려불화는 대략 170점으로 추정되는데,

현실세계의 복식을 고찰할 수 있는 圖像은 관경변상도, 미륵하생경변상도, 수월관음도, 지장보살도, 나한도 등 33점이다. 이 중 색상과 문양이 명확한 도상은 22점으로 선이 표현된 복식을 입고 있는 인물은 111명이며, 이들이 입고 있는 복식자료 177점을 선별하여 분석·고찰하였다. 단 한 도상에서 동일한 복식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1명으로 간주하였다.

II. 현실세계 인물의 복식에 사용된 선의 유형

고려불화에 나오는 현실세계의 인물은 크게 남자의 경우 王, 관리, 승려 등으로 분류되고, 여자의 경우 王비, 귀부녀, 궁중여관 등으로 분류된다. 인물들이 입고 있는 복식의 착용형태를 고려시대의 회화자료를 참고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실세계 인물의 복식에 사용된 선의 유형은 선행연구⁸⁾를 참조한다.

1. 남자

1) 王

왕의 모습은 親王院 소장의 彌勒下生徑變相圖(그림 1)과 大德寺 소장의 水月觀音圖(그림 2)에서 볼 수 있다.

『高麗圖經』에 의하면 나라의 관원과 사민이 모여 조회를 할 때에 王의 조복으로 束帶를 두르고 복두를 착용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송의 조복으로 황제는 通天冠에 絳沙袍, 황태자는 遠遊冠에 朱明衣를 착용하고 있다고 하였다.⁹⁾ 송대와 유사한 양관형의 관모에 흥색계의 大袖袍로 구성된 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그림 1, 2>에서 볼 수 있다.

<그림 1>은 1350년(忠定王 2)에 그려진 일본 친왕원 소장의 미륵하생경변상도로,¹⁰⁾ 王이 입고 있는 흥색계의 대수포는 깃과 수구, 밑단에 당초문이 그려진 흥색의 선이 둘러져 있다. <그림 2>는 1310년대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대덕사 소장의 수월관음도로,¹¹⁾ 王이 입고 있는 금박무늬가 화려한 흥색계의



〈그림 1〉 왕의 조복
-高麗時代의 佛畫,
1997, p. 138.



〈그림 2〉 왕의 조복
-高麗時代의 佛畫,
1997, p. 156.



〈그림 3〉 관리의 공복
-高麗時代의 佛畫,
1997, p. 236.



〈그림 4〉 崔惟善 像
-韓國服飾圖鑑, 2005,
p. 270.



〈그림 5〉 승려의 모습
-高麗時代의 佛畫,
1997, p. 232.



〈그림 6〉 覺真 國사상
-韓國의 美 20 -人物畫,
2001, 圖150.



〈그림 7〉 왕비의 모습
-高麗時代의 佛畫,
1997, p. 293.



〈그림 8〉 왕비의 모습
-高麗時代의 佛畫,
1997, p. 138.

대수포는 깃과 수구에 無紋의 녹색 선이 둘러져 있다.

2) 官吏

관리의 모습은 靜嘉堂文庫美術館 소장의 地藏十王圖(그림 3)에서 볼 수 있다.

『高麗圖經』에 의하면, 백관의 공복은 관모로 1품에서 9품까지 모두 복두를 썼으며 포는 직품에 따라 紫文羅袍, 緋文羅袍, 綠衣를 입었고, 帶도 직품에 따라 玉帶, 金帶, 紅鞚犀帶, 黑鞚角帶, 烏鞚 등의 구별이 있었으며, 여기에 金魚袋 또는 銀魚袋를 차고 손에는 훌을 들었다. 이 당시 백관의 공복은 최유선의 초상화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그림 4), 이는 고려불화에 보이는 공복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림 3〉은 14세기 전반의 끝무렵으로 추정되는 일본 정가당문고미술관 소장의 지장시왕도로,¹²⁾ 관관

이 입고 있는 소매가 넓은 녹색 단령포는 깃과 수구, 밑단에 무문의 동색 선이 둘러져 있다. 〈그림 4〉는 최유선(?~1075)의 초상화로¹³⁾ 소매가 넓은 비색 단령포의 깃과 수구에는 무문의 흑색 선이 둘러져 있다.

3) 僧侶

승려의 모습은 圓覺寺 소장의 地藏菩薩圖(그림 5)에서 볼 수 있다.

『高麗圖經』에 나타난 승복의 예는 각진국사의 초상화(그림 6)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고려불화에 보이는 승복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림 5〉는 14세기 전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원각사 소장의 지장보살도이다.¹⁴⁾ 道明尊者로 짐작되는 인물이 입고 있는 복식을 살펴보면, 植袈裟에 長袖編衫, 紫裳을 입고 있다. 장수편삼의 깃과 수구에는

보상당초문이 그려진 흑색의 선이 둘러져 있다. <그림 6>은 각진(1270~1355) 국사상으로,¹⁵⁾ 山水衲袈裟에 장수편삼, 자상 등을 착용하였다. 산수납가사는 능직으로 만들고 가장자리의 선에 꽃무늬를 수놓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장수편삼은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걸치는 옷을 합쳐 만든 法衣로 청색의 길에 깃과 도련, 수구에는 무문의 흑색 선이 둘러져 있다.¹⁶⁾

2. 여자

1) 王妃

왕비의 모습은 西福寺 소장의 관경서분변상도(그림 7)와 친왕원 소장의 미륵하생경변상도(그림 8)에서 볼 수 있다.

『高麗圖經』에는 왕비와 부인은 홍색을 숭상하여 그림과 수를 더하되, 관리나 서민의 처는 감히 이를 쓰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¹⁷⁾ 홍색 반비의 수구에 흰색의 천으로 주름을 잡아 장식한 왕비의 복식(그림 7)을 관경서분변상도에서 볼 수 있다.

<그림 7>은 13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서복사 소장의 관경서분변상도이다.¹⁸⁾ 韋提希왕비가 입고 있는 반비로, 홍색이고 반소매의 수구에 흰색 장방형의 긴 천에 규칙적으로 주름을 잡아 달았다. <그림 8>은 1350년에 그려진 일본 친왕원 소장의 미륵하생경변상도로¹⁹⁾ 왕비의 복식을 살펴보면, 대수포 위에 반비를 입고 품을 착용한 다음 운견을 둘러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있는데 원의 왕비 예복과 비슷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충렬왕대에 들어서면서 왕비가 원의 왕실에서 오게 되었고 이로 인해 몽골의 풍습이 궐내에 영향을 주어 예복은 물론 상복·평거복 등에서도 국속과 몽골풍의 이중구조가 나타났기 때문이다.²⁰⁾ 운견의 가장자리와 대수포의 깃과 수구에는 이색으로 된 무문의 선이, 반비의 수구에는 깃털형의 선장식이, 군의 밀단에는 주름형의 선장식이 달려있다.

2) 貴婦女

귀부녀의 모습은 대덕사 소장의 수월관음도(그림 9)에서 볼 수 있다. 고려시대 귀부녀들의 복식은 통

일신라기의 복식을 그대로 습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원 복속기에 들어와 일부에서 몽골복의 영향을 받은 모습이 보이고 있으나, 그림에 나타난 여성들을 보면 고려 말기까지도 통일신라기의 복식형태가 유지되었음을 볼 수 있다.²¹⁾ 귀부녀 복식의 예는 조반부인과 미국 박물관 소장 귀부인의 초상화(그림 10, 11)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고려불화에 보이는 귀부녀의 복식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림 9>는 1310년대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대덕사 소장의 수월관음도로,²²⁾ 좌측의 귀부녀는 녹색의 포를 착용하고 포 위에 홍색의 속대를 하고 있는데 포의 깃과 수구에 이중으로 된 병형의 문양이 동색의 선 위에 그려져 있다. 우측의 귀부녀는 황색유에 홍색상을 입고 있는데 유의 깃과 수구에는 무문의 동색 선이, 상의 밀단에는 무문의 흰색 선이 둘러져 있다. <그림 10>은 고려 말의 조반(1341~1401) 부인상으로,²³⁾ 소매가 길고 넓은 포는 다소 이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여밈도 없고 띠도 두르지 않았다.²⁴⁾ 포를 보면 짙은 청색 길에 홍색의 선이 깃과 셀선, 수구에 둘러져 있는데, 선에는 목단으로 보이는 花紋이 전체적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 포 속에 입은 유는 녹색의 길에 포와 같은 홍색의 선이 깃과 셀선에 둘러져 있는데 선에는 전체적으로 龜甲紋이 장식되어 있다.²⁵⁾ <그림 11>은 미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부인상이다.²⁶⁾ 머리에는 조바위를 쓰고, 진녹색 상의의 깃과 수구에 홍색의 선이 둘러져 있는데, 선에는 전체적으로 백색의 반원형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3) 宮中女官

궁중여관의 모습은 친왕원 소장의 미륵하생경변상도(그림 12)에서 볼 수 있다.

<그림 12>는 1350년에 그려진 일본 친왕원 소장의 미륵하생경변상도로²⁷⁾ 궁중여관의 복식을 살펴보면, 유와 삼으로 보이는 상의를 입고 그 위에 대수포와 반비를 착용한 다음 운견을 두르고, 하의로는 군과 폐슬을 착용한 다음 허리에는 늑전을 띠고披巾을 두른 경우와 반비와 운견은 착용하지 않고 대수포만 착용한 경우도 있다. 운견의 가장자리와 대수포의 깃과



〈그림 9〉 귀부녀의 모습
-高麗時代의 佛畫,
1997, p. 156.



〈그림 10〉 조반 부인상
-韓國의 美 20-人物畫,
2001, 圖144.



〈그림 11〉 귀부녀의 모습
-한국의 복식문화 I.,
1997, p. 448.



〈그림 12〉 궁중여관의 모습
-高麗時代의 佛畫,
1997, p. 138.

수구에는 이색으로 된 선이 둘러져 있는데, 선은 무문인 것과 연주문 또는 국화당초문이 그려진 것도 있다. 반비의 반소매 수구에는 깃털모양을 규칙적으로 장식하였다.

III. 선의 특성 고찰

1. 착용계층

선이 가해진 복식자료 총 177점을 중심으로 현실세계 복식의 착용계층별 출현율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먼저 〈표 1〉을 통해 선이 표현된 현실세계 남자복식의 착용계층을 살펴보면, 총 132점 중 승려가 97점, 관리가 22점, 왕이 13점으로 승려가 73.5%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이는 불화라는 특성상 佛家의 인물에

서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왕은 주로 이색무문형이 사용되었고, 관리는 이색무문형과 동색무문형이, 승려는 이색무문형과 이색유문형이 주로 사용되었다. 한편 왕의 복식에는 응용형의 부선형과 깃털형, 꽃잎형이 나타나지 않았고, 관리의 복식에는 응용형의 모든 유형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승려의 복식에는 응용형의 주름형과 깃털형, 꽃잎형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왕, 관리, 승려 등의 남자복식에서는 이색무문형이 주로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표 1〉을 통해 선이 표현된 현실세계 여자복식의 착용계층을 살펴보면, 총 45점 중 왕비와 귀부녀가 각각 16점, 궁중여관이 13점으로 왕비와 귀부녀, 궁중여관의 비중이 각각 35.6%, 28.8%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선은 신분이 높은 왕실과 상류층에서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왕비는 주

〈표 1〉 선이 표현된 현실세계 복식의 착용계층별 출현율

유형	착용계층				여자				
	왕	관리	승려	소계(%)	왕비	귀부녀	궁중여관	소계(%)	
기본형	동색무문형	1	8	4	13(9.8)		2	1	3(6.7)
	동색유문형	1	1	1	3(2.3)		2	1	3(6.7)
	이색무문형	8	11	54	73(55.3)	7	8	6	21(46.6)
	이색유문형	1	2	37	40(30.3)		1	2	3(6.7)
응용형	부선형			1	1(0.8)				0
	주름형	2			2(1.5)	5	1		6(13.3)
	깃털형				0	4	2	3	9(20.0)
	꽃잎형				0				0
착용계층별 소계(%)	13(9.8)	22(16.7)	97(73.5)	132(100)	16(35.6)	16(35.6)	13(28.8)	45(100)	

로 이색무문형과 주름형, 깃털형이 사용되었는데, 이 중 이색무문형이 제일 많이 사용되었다. 귀부녀와 궁중여관은 이색무문형이 주로 사용되었다. 한편 왕비의 복식에는 기본형의 동색무문형과 동색유문형, 이색유문형이, 응용형의 부선형과 꽂잎형이 나타나지 않았고, 귀부녀의 복식에는 응용형의 부선형과 꽂잎형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궁중여관의 복식에는 응용형의 부선형과 주름형, 꽂잎형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왕비, 귀부녀, 궁중여관 등의 여자복식에서도 남자복식에서와 같이 이색무문형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상에서 현실세계의 남·녀 복식에서는 이색무문형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그 외 남자복식에는 이색유문형이, 여자복식에는 깃털형과 주름형도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남자복식에는 기본형이 많이 사용되었고, 여자복식에는 기본형과 함께 응용형도 많이 사용되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즉 선은 남·녀 복식 모두에서 의복의 가장자리를 보강하는 실용적인 용도와 화려하게 꾸미는 장식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

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선은 남자복식보다 여자복식에서 더 많이 장식화되고 응용되었으며, 응용형태도 주름형, 깃털형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의복의 외관을 매우 화려하고 대담하게 장식하였다.²⁸⁾

2. 사용의복

왕, 관리, 승려, 왕비, 귀부녀, 궁중여관 등에 보이는 현실세계의 복식에서 선이 가해진 복식자료 총 177점을 중심으로 복식의 종류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먼저 <표 2>를 통해 현실세계의 남자복식에 사용된 선의 유형을 살펴보면, 기본형의 동색무문형은 관리의 대수포에 주로 사용되었고, 동색유문형은 관리의 대수포, 승려의 가사, 왕의 폐슬에 사용되었는데 그 정도가 극히 미미하다. 이색무문형은 승려의 장수편삼과 가사, 왕과 관리의 대수포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색유문형은 왕과 관리의 대수포에 사용되었는데 그 정도가 극

<표 2> 선이 사용된 현실세계 남·녀 의복의 종류

기 본 형	복식 종류	남자						여자						유형별 소계 (%)	
		袍		下衣		僧服		上衣		下衣		소품			
		왕	관리	왕	관리	승려	왕	귀부녀	궁중여관	왕비	귀부녀	궁중여관	귀부녀		
동색 무문형	대수포(1)	대수포(8)			장수편삼(2), 裳(2)		13(9.8)	대수포(1)	대수포(1)	유(1)				3(6.7)	
동색 유문형		대수포(1)			가사(1)	폐슬(1)	3(2.3)	대수포(1)	대수포(1)				폐슬(1)	3(6.7)	
이색 무문형	대수포(7)	대수포(7), 직령포(2), 단령포(1)	裳(1)	裳(1)	장수편삼 (30) 가사(18), 장삼(5), 裳(1)		73(55.3)	대수포(6)	대수포(5)	운건(1)	유(1)		裳(1)	21(46.6)	
이색 유문형	대수포(1)	대수포(1), 직령교임 대수포(1)			가사(31), 장수편삼(5), 장삼(1)		40(30.3)		대수포(2)	유(1)				3(6.7)	
부선형					가사(1)		1(0.8)							0	
주름형				裙(2)			2(1.5)			반비(2)	반비(1)	裙(3)		6(13.3)	
깃털형							0			반비(4)	반비(2)	반비(3)		9(20.0)	
꽃잎형							0							0	
종류별 소계(%)	9	21	3	1	97(73.5)	1	132(100)	6	7	9	7	6	3	45(100)	
		30(22.7)	4(3.0)			(0.8)		22(48.9)			16(35.6)	5(11.1)		(4.4)	

히 미미하고, 승려의 가사와 장수편삼에 주로 사용되었다. 응용형의 부선형은 승려의 가사에, 주름형은 왕의 군에 사용되었는데 그 정도가 극히 미미하다.

즉, 현실세계의 남자복식인 포에는 이색무문형과 동색무문형이 주로 사용되었고, 하의에는 이색무문형과 주름형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소품에는 동색유문형이 주로 사용되었다. 한편 승려가 입는僧服에는 이색무문형과 이색유문형이 주로 사용되었다.

<표 2>에 의하면 선이 사용된 의복의 종류별 출현순위는 가사>장수편삼>대수포>장삼>裳>裙>폐슬 등의 순이다. 즉 현실세계의 남자복식에 사용된 선은 가사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장수편삼과 대수포에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본형 중 이색무문형은 장수편삼, 가사, 대수포 등에 사용되었다. 이는 의복의 가장자리 처리라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시에 배색효과로 인해 장식성을 겸하고 있다. 기본형 중 이색유문형은 가사, 장수편삼, 대수포 등에 주로 사용되어 신분을 표시하거나 장식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다음으로 <표 2>를 통해 현실세계의 여자복식에 사용된 선의 유형을 살펴보면, 기본형의 동색무문형과 동색유문형은 귀부녀와 궁중여관의 대수포에 주로 사용되었는데 그 정도가 극히 미미하다. 이색무문형은 왕비와 귀부녀, 궁중여관의 대수포에 주로 사용되었고, 이색유문형은 궁중여관의 대수포와 귀부녀의 유에 사용되었는데 그 정도가 극히 미미하다. 응용형의 주름형은 왕비의 반비와 상, 귀부녀의 반비에 주

로 사용되었고, 깃털형은 왕비와 귀부녀, 궁중여관의 반비에 주로 사용되었다. 즉, 현실세계의 여자복식인 포에는 이색무문형이 주로 사용되었고, 상의인 반비에는 깃털형과 주름형이 주로 사용되었고, 하의인 군에는 주름형이 주로 사용되었다.

<표 2>에 의하면 선이 사용된 의복의 종류별 출현순위는 대수포>반비>襦>裙>裳=폐슬>운전 등의 순이다. 즉 현실세계의 여자의복에 사용된 선은 대수포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반비에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본형 중 이색무문형은 대수포에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 역시 남자의복에서와 같이 실용과 장식을 겸하고 있다. 응용형 중 깃털형은 반비에, 주름형은 군에 주로 사용되어 실용성보다는 장식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상에서 고려불화에 보이는 선은 현실세계의 남·녀의복 모두 의례용 포에 주로 사용되었고, 그 외 승복, 여자 상의의 반비와 치마류에 사용되었다. 즉 선은 주로 상류층 남녀의 겉옷에 사용되어 의복의 외관을 화려하고 위엄있게 장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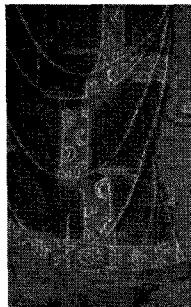
3. 문양

1) 구성요소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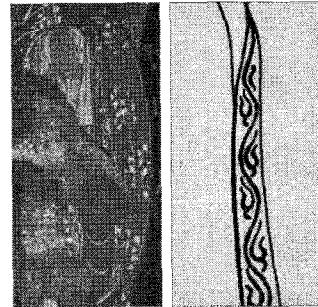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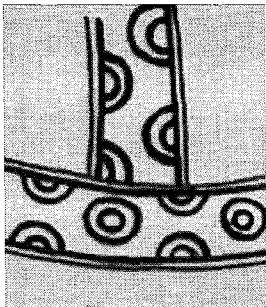
구성요소에 따른 현실세계의 남·녀복식에 표현된 선에 사용된 문양은 크게 단독형과 복합형으로 분류된다. 선에 사용된 문양의 종류를 각 인물별로 정리

<표 3> 구성요소에 따른 선의 유형별 출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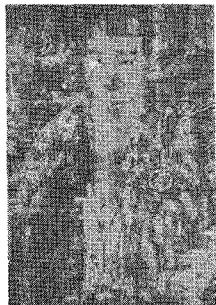
분류	문양의 종류(유물수)										유물수(%)		
	남자복식					여자복식							
	왕	관리	승려	왕비	귀부녀	궁중여관							
단독형	식물문	당초문(1)	1	당초문(1)	1	당초문(7), 초화문(4), 마엽문(1)	12	0	0	당초문(1)	1	15 (33.3)	
	기하문		0	점문(2)	2	점문(10), 연주문(9), 기타(2)	21	0	기타(1)	1	연주문(1)	1	25 (55.6)
복합형	식물문+ 식물문	국화당초문(1)	1		0	보상당초문(1), 국화당초문(1)	2	0	국화당 초문(1)	1	국화당초문(1)	1	5 (11.1)
소 계(%)		2(4.4)		3(6.7)		35(77.8)	0	2(4.4)		3(6.7)		4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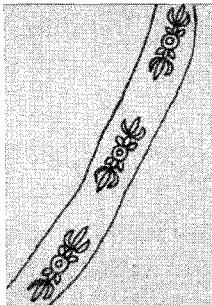
〈그림 13〉 단독형(연주문)
-高麗時代의 佛畫, 1997, p.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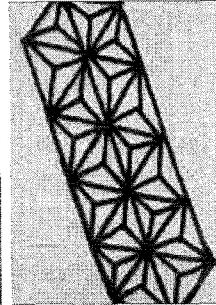
〈그림 14〉 단독형(당초문)
-高麗時代의 佛畫, 1997, p. 248.



〈그림 15〉 단독형(초화문)
-高麗時代의 佛畫, 1997, p. 130.



〈그림 16〉 단독형(마엽문)
-高麗時代의 佛畫, 1997, p. 250.



하면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구성요소에 따른 현실세계의 복식에 표현된 선에 사용된 문양은 크게 단독형과 복합형으로 분류되고, 단독형은 식물문과 기하문으로 분류되고, 복합형은 식물문과 식물문으로 분류된다. 문양이 시문된 복식자료 45점²⁹⁾ 중 단독형은 40점으로 88.9%, 복합형은 5점으로 11.1%로 단독형이 현저하게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단독형의 경우 연주문(그림 13)과³⁰⁾ 점문, 당초문(그림 14),³¹⁾ 초화문(그림 15),³²⁾ 등의 기하문과 식물문이 현저하게 많이 나타나며, 이 중에서도 연주문과 당초문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 외에 마엽문(그림 16)이³³⁾ 사용되었으나 그 정도가 극히 미미하다. 연주문과 당초문은 승려의 가사 가장자리에 주로 사용되었다.

복합형의 경우 식물문과 식물문이 조합된 것만 나타나는데, 주로 사용된 문양은 당초문에 화문이 더해졌으며, 화문은 국화, 보상화 등이 주류를 이룬다. 국

화당초문(그림 17)은³⁴⁾ 승려의 가사, 왕과 귀부녀의 폐슬 가장자리에, 보상당초문(그림 18)은³⁵⁾ 승려의 장수편심의 깃과 수구에 사용된 예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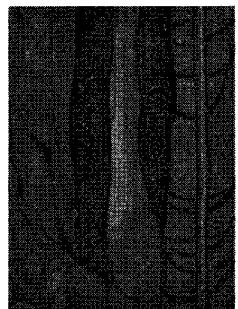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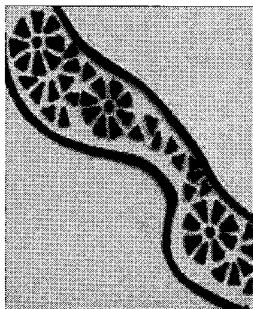
이상에서 현실세계 복식의 선에 표현된 연주문과 당초문은 주문양으로 사용되는 가운데 보조문양으로도 다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단독형과 복합형 모두에서 식물문이 현저하게 많이 나타나고, 식물문 중에서도 국화문과 보상화문 등이 당초문과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귀족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이 역시 불교세계의 복식에서와 같이 고려사회가 불교를 숭상하는 왕실과 귀족계급의 호응을 받아 변성한 까닭에 화려한 귀족적 취향이 불화복식에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³⁶⁾

2) 배치구도별

배치구도에 따른 현실세계의 복식에 표현된 선에 사용된 문양은 충전형과 산점형으로 나타나고 회화형



〈그림 17〉 복합형(국화당초문)
-高麗時代의 佛畫, 1997, p.141



〈그림 18〉 복합형(보상당초문)-高麗時代의 佛畫,
1997, p.231 ; 高麗佛畫의 紋樣 研究, 2000, p.21



은 나타나지 않았다.

충전형은 문양의 형태에 따라 연결형과 원형, 방형으로 분류되나, 현실세계의 복식에서는 연결형만 나타났다. 선에 사용된 문양의 배치구도를 각 인물별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문양이 시문된 현실세계의 복식자료 45점 중 충전형이 14점으로 31.1%, 산점형이 31점으로 68.9%로 산점형이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현실세계 복식의 선에 표현된 문양은 산점형이 주로 사용되었다.

충전형의 경우 문양이 충전되는 방법은 주로 국화문과 당초문이 결합되어 가득 메워진 경우도 있고(그림 17 참조), 보상화문과 당초문이 결합되어 가득 메워진 경우도 있다(그림 18 참조). 충전형은 문양이 복합으로 조합되어 면을 가득 채움으로써 충만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충전형은 왕, 관리, 승려, 귀부녀, 궁중여관 등에 보이는 현실세계의 복식에는 사용되었으나 왕비의 복식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산점형의 경우 현실세계의 복식에는 주로 단위문이 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연주문이 이색의 선 위에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다(그림 13 참조). 산점형은 충전형에 비해 여백의 미를 느끼게 하며 차분하고 안정

된 이미지를 연출한다. 산점형은 관리, 승려, 귀부녀, 궁중여관 등에 보이는 현실세계의 복식에는 사용되었으나 왕과 왕비의 복식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왕비의 복식에는 문양이 나타나지 않아 특징적인데 이는 복식에 사용된 선이 주로 이색무문형이나 주름형, 깃털형 등의 형태로 사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충전형은 왕, 관리, 승려, 귀부녀, 궁중여관 등에 보이는 현실세계의 복식에 사용되었고, 산점형은 관리, 승려, 귀부녀, 궁중여관 등의 복식에 사용되었다. 즉 현실세계 복식의 선에 표현된 문양은 산점형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한 단위문의 문양이 중복되어 나타남으로써 여백의 미를 느끼게 하며 차분하고 안정된 이미지를 연출한다.

4. 배색방법

배색방법은 편의상 흑백조화, 보색조화, 유사색조화, 동일색조화, 이색조화 등으로 구분한다.

바탕천과 선의 배색방법을 알 수 있는 현실세계의 복식자료 총 177점을 선별하여 각 인물별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4〉 배치구도에 따른 선의 유형별 출현율

유형	남자복식			여자복식			유물수 (%)
	왕	관리	승려	왕비	귀부녀	궁중여관	
충전형	2	1	8	0	1	2	14(31.1)
산점형	0	2	27	0	1	1	31(68.9)
소 계(%)	2(4.4)	3(6.7)	35(77.8)	0	2(4.4)	3(6.7)	45(100)

고려불화를 통해 본 현실세계 인물의 복식에 표현된 선(襪)의 특성

<표 5> 현실세계의 복식에 사용된 배색방법의 출현율

제작방법	남자복식			여자복식			유물수 (%)
	양	한	관	양	한	관	
비당천	선	유물수	소계 (%)	비당천	선	유물수	소계 (%)
후백조회	0	0	0	백	7	2(2.1)	0
보색조회	4	8(61.5)	3(31.8)	백	5	3	0
유사색조회	0	0	0	백	2	2(33.0)	0
동일색조회	1	2(15.4)	11(50.0)	백	1	1	0
이색조회	2	3(23.1)	4(18.2)	백	2	1	0
소계(%)	13(100)	22(100)	97(100)	백	5	1	0
				황	1	1	2(1.2)
				황	1	1	8(61.5)
				황	1	1	76(42.9)
				황	1	1	5
				황	1	1	2(1.2)
				황	1	1	1(7.7)
				황	1	1	32(18.1)
				황	1	1	2(12.5)
				황	1	1	1(7.7)
				황	1	1	2(15.4)
				황	1	1	28(15.8)
				황	1	1	1(7.7)
				황	1	1	39(22.0)
				황	1	1	1(7.7)
				황	1	1	13(100)
				황	1	1	177(100)

〈표 5〉를 통해 왕의 복식에 표현된 배색방법의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13점 중 보색조화가 8점, 이색조화가 3점, 동일색조화가 2점의 순으로 보색조화가 61.5%로 나타나고 있어 왕의 복식에 가장 많이 사용된 배색방법은 보색조화이고, 흑백조화와 유사색조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를 통해 관리의 복식에 표현된 배색방법의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22점 중 동일색조화가 11점, 보색조화가 7점, 이색조화가 4점의 순으로 동일색조화가 50.0%로 나타나고 있어 관리의 복식에 가장 많이 사용된 배색방법은 동일색조화이고, 흑백조화와 유사색조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를 통해 승려의 복식에 표현된 배색방법의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97점 중 보색조화가 32점, 유사색조화가 29점, 이색조화가 25점, 동일색조화가 9점, 흑백조화가 2점의 순으로 보색조화와 유사색조화가 각각 33.0%, 29.9%로 나타나고 있어 승려의 복식에 가장 많이 사용된 배색방법은 보색조화와 유사색조화임을 알 수 있다.

〈표 5〉를 통해 왕비의 복식에 표현된 배색방법의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16점 중 보색조화가 13점, 이색조화가 3점의 순으로 보색조화가 81.3%로 나타나고 있어 왕비의 복식에 가장 많이 사용된 배색방법은 보색조화이고, 흑백조화와 유사색조화, 동일색조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를 통해 귀부녀의 복식에 표현된 배색방법의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16점 중 보색조화가 8점, 동일색조화가 4점, 유사색조화와 이색조화가 각각 2점의 순으로 보색조화가 50.0%로 나타나고 있어 귀부녀의 복식에 가장 많이 사용된 배색방법은 보색조화이고, 흑백조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를 통해 궁중여관의 복식에 표현된 배색방법의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13점 중 보색조화가 8점, 동일색조화와 이색조화가 각각 2점, 유사색조화가 1점의 순으로 보색조화가 61.5%로 나타나고 있어 궁중여관의 복식에 가장 많이 사용된 배색방법은 보색조화이고, 흑백조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배색방법에 따른 색상조화를 보면, 흑백조화는 흑과 백의 배색으로 정갈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을 준다.

보색조화는 황과 녹청, 황과 군청, 홍과 군청, 갈과 녹청, 자주와 녹청, 홍과 청 등의 배색으로 주로 진한 바탕색과 대조를 보이는 색상을 사용하여 바탕천에서 선의 색상을 선명하게 부각시켜 강한 느낌을 준다. 유사색조화는 녹청과 군청, 녹과 청, 황과 홍, 황과 갈, 군청과 녹청, 홍과 자주 등의 배색으로 주로 바탕색과 서로 융화되어 차분하고 통일된 느낌을 준다. 동일색조화는 주로 동색유문형과 동색무문형에만 사용되는데 바탕천과 선의 경계가 없어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는 동시에 바탕천과 선의 색상이 동일함으로 다소 단조로우나 안정된 느낌을 준다. 이색조화는 주로 무채색인 白·灰·黑과 유색의 배색으로 차분하면서도 담백한 이미지를 자아낸다.

〈표 5〉에 의하면 현실세계의 복식에 표현된 배색방법의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177점 중 보색조화가 76점, 이색조화가 39점, 유사색조화가 32점, 동일색조화가 28점, 흑백조화가 2점의 순으로 보색조화의 비중이 42.9%로 나타나고 있어 현실세계의 복식에 가장 많이 사용된 배색방법은 보색조화임을 알 수 있다. 즉 선은 현실세계의 남·녀복식에서 모두 보색조화가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각 인물별로 배색방법을 살펴보면, 왕과 왕비, 귀부녀, 궁중여관의 복식에는 보색조화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색상조화는 모두 바탕천으로부터 선을 강하게 부각시킴으로써 화려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리의 복식에는 동일색조화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색상조화는 바탕천과 선의 경계가 없어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승려의 복식에는 보색조화와 유사색조화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색상조화는 바탕천으로부터 선의 색상을 선명하게 부각시킴으로써 화려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동시에 바탕천과 선이 서로 융화되어 차분하고 통일된 느낌을 주어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선은 남·녀복식 모두에서 보색조화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색상조화는 바탕천으로부터 선을 강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의복을 화려하게 꾸미는 장식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자아낸다.

IV. 결언

고려불화에 보이는 현실세계 인물들이 입고 있는 복식에 표현된 선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실세계 인물의 복식 착용형태를 살펴보면, 불교세계의 인물 중 제왕, 신장, 천녀 등은 불교세계의 인물이지만, 이들이 착용하고 있는 복식은 현실세계에서 왕과 왕비, 백관, 귀부녀, 궁중여관 등이 입은 복식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불화에 나타난 복식 중 여래와 보살이 착용한 복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복식은 고려 사회에서 실제로 착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선에 사용된 문양과 장식은 현실세계 인물의 복식에서 보다 불교세계 인물의 복식에서 더 섬세하고 화려하고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2. 선의 착용계층을 보면, 선은 남자의 경우 승려의 복식에, 여자의 경우 왕비와 귀부녀의 복식에서 출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려사회가 불교를 승상하여 많은 불화가 제작되었고, 불교가 귀족문화와 결합되면서 불화에 佛家의 인물 외에 신분이 높은 왕실과 상류층의 인물들도 많이 묘사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3. 선의 사용의복을 보면, 선은 남·녀복식 모두의 의복에 주로 사용되었고, 그 외 승복, 여자의 반비와 치마에 사용되었다. 이처럼 선은 포와 장수편삼의 깃, 수구, 밑단에 주로 사용되어 의복의 가장자리 처리라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시에 배색효과로 인해 장식적인 목적도 겸하고 있다. 즉 선은 주로 가장 옆에 입는 옷에 사용되어 의복의 외관을 매우 화려하고 위엄있게 장식하였으며, 특히 반비의 반소매 수구와 치마의 밑단에 사용된 선에는 실용성보다는 장식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4. 선에 사용된 문양을 보면, 단독형과 산점형이 주로 사용되었다. 즉 한 단위문의 식물문이 중복되어 나타남으로써 여백의 미와 함께 차분하고 안정된 이미지를 연출한다. 이는 불화라는 특성상 경배대상이 되는 불교세계의 인물인 여래나 보살들은 화면의 중심부에 배치되어 있고, 그들의 의복과 장신구에는 정교하고 화려한 문양이 가득 채워진 선이 표현되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현실세계의 인물들

은 화면의 가장자리에 배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복과 장신구에는 상대적으로 간략한 문양으로 된 선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5. 선의 배색방법을 보면, 남·녀복식 모두에서 보색조화가 주로 사용되었다. 보색조화는 바탕천으로부터 선을 강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의복의 전체 이미지를 화려하면서도 깔끔하고 세련되게 연출한다.

참고문헌

- 1) 옥명선, 박옥련, 이주영 (2007). 고려불화를 통해 본 현실세계 인물의 복식에 표현된 선(襯)의 유형분류. 복식, 57(1), pp. 39-49.
- 2) 앞의 논문 p. 47.
- 3) 崔永順 (1992). 韓國의 菩薩服飾에 관한 研究 - 6~8세기 菩薩像과 高麗佛畫를 중심으로. 東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金眞熙 (1996). 高麗時代 地藏菩薩圖의 服飾에 관한 研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지미령 (2001). 고려후기·조선전기 지장보살도의 복식 변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고승희 (2000). 高麗佛畫의 紋樣 研究.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林明子 (1984). 高麗佛畫에 나타나는 衣裳紋樣 研究. 속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영주 (1981). 高麗佛畫의 紋樣. 韓國의 美 7- 高麗佛畫. 서울: 中央日報社, pp. 217-229.
- 5) 박옥련 (1992). 高麗時代 水月觀音圖의 衣裳에 나타난 文樣研究. 한국의류학회지, 16(1).
- 6) 정현주 (1990). 高麗時代 水月觀音圖의 배일에 나타난 文樣 研究.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옥명선, 박옥련, 이주영 (2005). 고려후기 阿彌陀如來圖 복식에 표현된 横의 유형과 조형특성. 복식, 55(2), pp. 58-69.
- 8) 옥명선, 박옥련 (2006). 고려후기 水月觀音圖 복식에 표현된 横의 유형과 조형특성. 복식, 56(1), pp. 70-80.
- 9) 蔡今錫 (1988). 高麗佛畫에 나타난 高麗服飾의 考察 - 형태와 구조를 중심으로. 淑明女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金眞成 (1993). 高麗佛畫에 나타난 女人 服飾 考察.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10) 임명미 (1994). 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물을 통해서 본 복식에 관한 연구(2). 복식, 22, pp. 205-224.
- 11) 임명미 (1994). 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물을 통해서 본 복식에 관한 연구(2). 복식, 23, pp. 211-223.
- 12) 임명미 (1995). 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물을 통해서 본 복식제도에 관한 연구(2). 복식, 26, pp. 221-232.
- 13) 옥명선, 박옥련, 이주영 (2007). 앞의 논문, pp. 39-49.
- 14) 앞의 논문, pp. 41-46.
- 15) 劉頌玉 (1998). 韓國服飾史. 서울: 修學社, pp. 108-109.
- 16) 菊竹淳一, 鄭于澤 編(1997). 高麗時代의 佛畫. 서울: 시공사, p. 138.

- 11) 앞의 책, p. 156.
- 12) 앞의 책, p. 236.
- 13) 韓國服飾圖鑑, 統一新羅·後百濟·後高句麗·高麗 編 (2005). 서울: KBS 아트비전, p. 270.
- 14) 菊竹淳一, 鄭于澤 編 (1997). 앞의 책, p. 232.
- 15) 中央日報社 (2001). 韓國의 美(20)-人物畫. 서울: 삼성 인쇄주식회사, 圖 150.
- 16) 옥명선 (2004).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横의 유형과 조형특성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3.
- 17) 高麗圖經. 卷 23. 婦人條 貴婦.
- 18) 菊竹淳一, 鄭于澤 編 (1997). 앞의 책, p. 293.
- 19) 앞의 책, p. 138.
- 20) 유희경, 김문자 (1998).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教文社, pp. 156-157; 안명숙, 김용서 (2001). 한국복식사. 서울: 예학사, p. 62.
- 21) 유희경, 김문자 (1998). 앞의 책, p. 162.
- 22) 菊竹淳一, 鄭于澤 編 (1997). 앞의 책, p. 156.
- 23) 中央日報社 (2001). 앞의 책, 圖 144.
- 24) 李京子, 洪那英, 張淑煥 (2003). 우리 옷과 장신구. 서울: 열화당, p. 13.
- 25) 옥명선 (2004). 앞의 논문, pp. 24-25.
- 26) 임명미 (1997). 한국의 복식문화(I). 서울: 경춘사, p. 448.
- 27) 菊竹淳一, 鄭于澤 編 (1997). 앞의 책, p. 138.
- 28) 옥명선, 박옥련, 이주영 (2007). 앞의 논문, p. 47.
- 29) 총 177점 중 문양이 나타나지 않은 동색무문형과 이색무문형, 부선형, 주름형, 깃털형 등의 128점과 정확한 문양을 알 수 없는 4점을 제외하였다.
- 30) 菊竹淳一, 鄭于澤 編 (1997). 앞의 책, p. 275.
- 31) 앞의 책, p. 248.
- 32) 앞의 책, p. 130.
- 33) 앞의 책, p. 250.
- 34) 앞의 책, p. 141.
- 35) 앞의 책, p. 231.
그림에서는 보상당초문으로 추정되나 도식화 작업시 그림이 너무 작고 흐려서 선행연구(고승희 (2000). 앞의 논문, p. 21)의 도식화를 참고하였다.
- 36) 옥명선, 박옥련, 이주영 (2005). 앞의 논문, p. 65.